

투데이 칼럼

북한의 공업 정책

북한이 2023년 을 정권 수립 기념일을 맞아 개최한 열병식에 전라북도 대표 트랙터가 등장하고 방직공장 노동자들이 행진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지난 9월 9일 열린 열병식에서 북한이 전면에 내세운 건 주력부대가 아니었다.

평양방직공장 지배인을 선두로 한 방직공 처녀들이었다. 무기도 전라북도가 아니라 트랙터와 트랙터에 실은 재래식 무기가 주로 등장해서 통상의 열병식과는 다른 장면을 연출했다.

경공업 공장 소속으로 보이는 트랙터 컨테이너에 방사포가 장착된 모습도 포착됐다. 트랙터가 무기를 끌거나 트레일러에 농경작위군 병사들이 도열한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

민간 시설들을 이용해서 어떤 위협적인 요소를 과시하려고 기획한 것인지 의문이다. 북한은 항상 현대전은 전선과 후방이 따로 없다고 강조한다. 후방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군사 건설의 원칙이다.

그래서 그걸 과시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열병식에는 용약산 샘물 공장, 김정숙 방직공장, 그리고 기업소들도 참여했다. 이는 북한에서 중요한 공장들과 기업소들이다.



정복규 논설위원

트랙터와 기계 생산을 비롯 중화학공업, 화학공장 등을 북한에서는 중공업이라고 한다. 식품 생산, 모직 생산 등 생활필수품을 만드는 것은 경공업이라고 한다. 북한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게 기본 건설 원칙이다.

북한은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중국식의 경공업 우선 발전 노선을 채택할 것인지 또 소련식의 중공업 우선 중심으로 갈 것인지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켰다.

그리고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병진 노선을 내세웠다. 2021년도 8차 당 대회 때는 인민들에게 풍족한 생활을 제공한다면서 절대적인 뉘를 차지하는 경공업의 중요성과 발전 방향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집권 초부터 경공업을 상당히 강조해왔다. 그는 "경공업 부문에서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명제품, 명상품들을 더 많이 내놓아야 합니다."라고 했다.

북한 TV는 이런 흐름에 맞춰서 경공업 부문을 자주 소개하고 또 성과를 선전한다.

지난 8월 열린 소비품 전시회에는 200여 개 경공업 기업소가 참여해 식료품과 가정용품 39만 개를 선보였다.

성과를 낸 공장도 소개됐다. 북한에서는 이런 전시회가 종종 열리고 북한 TV는 또 자주 소개한다. 지난해 열린 여성 옷 전시회에서는 경공업 혁명이라는 구호도 눈에 들어온다.

전시회에서는 제품뿐만 아니라 포장 디자인도 이전과는 사뭇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북

한에는 지금 크게 세 가지 구호가 있다. 우리 국가 제일주의, 인민 대중 제일주의, 그리고 자립 경쟁 노선이다.

그중에 인민 대중 제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수준의 경제적 향상이 필요하다. 경공업 부문에서의 생산 독려를 많이 하는 이유다. 경공업 생활필수품은 그냥 만들어서 수량만 보장하는 게 아니라 질도 강조한다.

요즘 북한이 강조하는 것은 시장에서 팔리는 제품을 만들라는 것이다. 최근에는 관련법까지 개정했다.

품질 감독법을 비롯한 민생 관련 법안들의 수정 보충 내용에 관한 문제를 심의하고 해당 법령을 채택했다.

노동신문은 경공업 제품의 질 제고는 증산이자 절약, 애국이라고 강조한다. 옷공장과 신발공장 등 주요 경공업 공장들을 소개하기도 한다. 평양 슈퍼마켓이나 백화점에는 ISO 22000, 표준인증 체계를 통과하였습니다 라는 문구가 들어간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중공업이든 경공업이든 결국에는 주민들 생활 안정이 최고다. 북한의 공업 정책이 주민들 민생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사설

넘쳐나는 빈집, 지역 활용 시행 계획 필요

빈집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주민 거점 공간으로 탈바꿈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빈집은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되기 일쑤다. 자치단체의 빈집 정비 사업은 걸음마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안에서는 10년 넘게 방치돼 온 소금공장을 철거한 자리에 예술 공방이 들어섰다. 3개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 주민 커뮤니티센터는 2년 전만 해도 허름한 빈집이었다.

부안군이 국토교통부의 뉴딜 사업에 선정돼 빈집 20여 곳을 철거하고 주민 거점 시설을 조성한 것이다. 국비 160억 원을 확보해 예산 부담도 줄였다. 부안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 46개 팀이 참여하도록 했다.

이런 방식으로 빈집을 활용하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방치되는 정비의 기초가 되는 현황 조사부터 허술하다. 마을 이장들

에게 조사를 맡기기도 해 활용 가치가 있는지 파악하기도 어렵다.

정확성이 떨어져 제대로 된 정비 계획이 수립될 수 없다. 빈집이 2천3백 곳이 넘는 무주와 진안, 일실지역에는 빈집을 재활용한 사례가 한곳도 없는 실정이다.

빈집을 정비해서 또 다른 활용 공간으로 재생된 사례가 없다. 빈집 정비의 시작은 정확한 현황 조사와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다. 빈집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한 빈집 기본 계획이 중요하다.

빈집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국가 공모 계획에 주민들이 참여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빈집이 지역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시행 계획이 필요하다.

빈집이 갈수록 늘고 있다. 빈집도 잘 활용하면 지역의 자원이 될 수 있다. 주민들과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실행에 옮기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의 워라벨 세대

워라벨이란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Work and Life Balance)'의 줄임말이다. 거창한 성공을 꿈꾸기보다 일상을 즐기려는 젊은 직장인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일컫는다.

한국에서는 2018년부터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다. 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부터 1994년까지 세대를 '워라벨 세대'라 부른다. 이들은 일상을 즐길 정도의 소득 수준에 만족한다.

직장 생활이 우선시하는 것을 당연히 여겼던 과거와 달리 개인 생활을 중시하는 문화가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한국은 1인당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2,069시간이다. OECD 평균 1,763시간과 306시간 차이가 난다.

워라벨 세대는 일 때문에 자기 삶을 희생하지 않는다. 조직보다 개인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많은 돈을 받기보다는 스트레스 없는 삶을 꿈꾸며

삶의 만족이 높은 걸 바란다. 직장 역시 돈보다는 적게 일하고 적당히 버는 쪽을 선호한다. 남은 시간은 휴식과 여행, 취미, 자기계발 등의 개인 생활로 채워진다.

워라벨 세대의 등장과 개인주의 문화의 확산에서 찾기도 한다.

개인의 노력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큰 성공보다는 소소하고 일상적인 것에서 만족을 찾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2018년 육아시간과 출산 휴가를 확대하고 초과 근무 시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하는 등의 국가공무원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부 기업에서도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자율 출퇴근제를 시행하는 등 적게 일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워라벨'은 매우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루마니아 혁명 희생자 애도하는 여성



지난 21일(현지시각)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루마니아 혁명 34주년을 맞아 희생자 추모 의식이 열려 한 여성이 묘석에 기대어 울고 있다. 루마니아는 1989년 12월18일부터 27일까지 민중 봉기가 일어나 1천여 명이 숨지고 당시 독재자 엘레나 차우세스쿠가 공개 처형당했다.

영 유로터널 직원 파업으로 발 묶인 여행객들



지난 21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의 세인트 판크라스역에 승객들이 몰려들고 있다. 크리스마스 불과 이상일 앞두고 영국과 유럽을 잇는 유로터널 직원들이 상여금 인상을 요구하며 예고 없이 파업에 돌입, 터널이 폐쇄되면서 여행객들의 발이 묶이는 사태가 벌어졌다.

Large advertisement for Jeonju Daily featuring a stylized illustration of a boat on water and the text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A platform for humans who give courage and hope).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